

대 학 평 의 회 회 의 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4. 11. 03(월)
의원정수 : 11명	출석의원 : 11명

1. 회의일시 : 2014년 11월 17일(월)

2. 회의장소 : 9동 2층 대회의실

3. 의원 출·결 현황

가. 출석의원 : 정현준, 박종운, 이기욱, 김종기, 이명구, 박보현, 박지환, 장수진, 황철하, 김석주, 이용기

나. 불참의원 : 없음

4. 회의안건

- 2014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정 예산(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 계획(안) 자문
- 학칙개정(안) 심의

5. 회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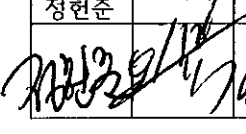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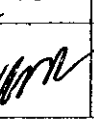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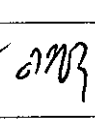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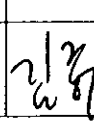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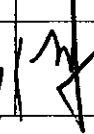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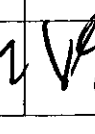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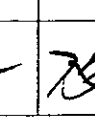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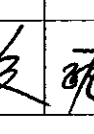


(위원장) 먼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대학평의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에 세월호사건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더 어려운 일도 잘 이겨내 왔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의원 11분이 모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제1안이 2014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정예산(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 계획(안)이고 제2안이 학칙개정안입니다. 규정상 제1안은 자문이고 제2안은 심의입니다. 그러면 제1안인 2014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정예산(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 계획(안) 자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진) 안녕하세요 재무팀장 김익진입니다. 먼저 2014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정예산(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진행하다)

[세입부분에서 법인수익금 증대로 인한 법정부담전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서점운영수익증가와 장기예금 만기일에 의한 회계기간변경으로 투자와 기타자산외에서 상당부분 증감이 있었습니다. 휴·복학생 변동에 의해 등록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캠퍼스마스터플랜 조성 준비금으로 전기이월금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출부분에서 보수부분에 증감이 있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일반관리외비용에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연구 및 학생경비에서 감액이 있었습니다. 고정자산취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본 예산보다 33억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 장·단기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재정운영계획의 목표는 대학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우선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 장 정현준	이기욱	박종운	이명구	김종기	장수진	박지환	박보현	황철하	김석주	이용기
										

순위를 두어 재원 조달 및 배분을 하여 내실 있는 대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예산편성 및 중장기 재정운영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자체평가서 및 사업시행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부서의 운영을 평가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표관리를 통하여, 등록금의존율을 낮추고, 내실 있는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재정 및 예산계획과 심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재정운영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치로 본 재정계획은 수입과 지출면에 있어서 2014년 790억에서 2017년 약650억까지 감액시켰으며, 그 이유는 등록금 수입의 감소와 은행이자율의 하락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의 긴축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014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경 예산(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자문의견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금번 예산안 중에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익진) 사실 2014년이 되면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학진흥재단 지침 등이 변경되었고, 따라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해서 금번 추경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업회계기준으로 보면 잘 맞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특례규칙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박종운) 그러면 장·단기재정운영계획에서 2014년도 재정운영계획안의 금액과 현 추경예산안의 금액과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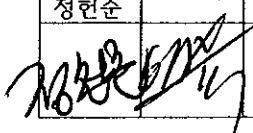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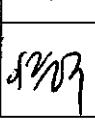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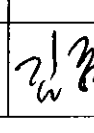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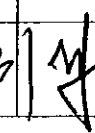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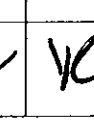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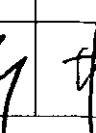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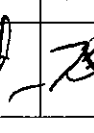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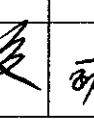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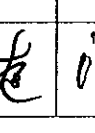

(김익진) 시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자산 매각대금이 10월경에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학 내부적으로 2014년 재정운영계획을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자산매매계약의 완료시점이 차기년도로 넘어가면서 금번 회기의 수입으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만큼 재정운영계획상에는 있는데 추경예산안에는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구)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 즉 시설이나 최신기자재 및 장비의 보유,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 등에 예산이 균형있게 투자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추경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익진)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이나 기자재부분에 많은 증가는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자재 등은 이미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상당부분 투자되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취업캠프나 국제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어분야에도 꾸준히 투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네 의원님들의 관심과 자문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그러면 제1안인 2014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경 예산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 자문에 대한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제2안건인 대전보건대학교 학칙개정안 심의 건으로 주무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교무과장 김경한입니다. 2014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학칙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과 PPT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 장 정현준	이기욱	박종운	이명구	김종기	장수진	박지환	박보현	황철하	김석주	이용기
										

다. (특전 의무부사관과, 과학수사과의 신설 및 대학의 직제개편, 업무의 변경에 의한 학칙 개정으로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 제9조, 제21조, 제81조의 개정이 있으며, 편입학 제도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제26조(편입학)를 개정하고자 하며, 제28조(전과)에서 보건계열로의 전과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합니다. 제35조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타과 수강시 자기주도선택교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개정될 학칙이 타과강의를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제50조(졸업)에서 소속학과 기준 전공최저 이수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심화할 수 있도록 졸업유보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번 안건은 심의를 하여야 하므로 교수님과 직원분들이 심의의견을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지환) 제5조의3을 보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학과를 폐지할 수 있고 계열별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입학자원수가 감소되는 것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학과를 계열별로 묶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의 계열과 소속학과로 구성되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수) 안녕하세요. 기획팀장 박의수입니다. 계열변경에 대해서 전략기획실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기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계획은 3주기 동안 7%정도의 정원 감축계획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대학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정하려는 것이구요. 내부경쟁력, 외부경쟁력, 취업률, 충원을 등을 고려하여 학과단위의 통폐합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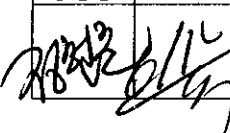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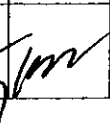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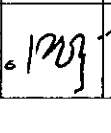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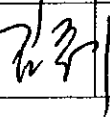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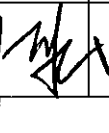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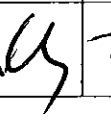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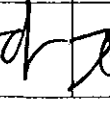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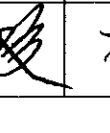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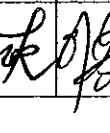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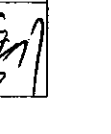

(박지환) 계열별 통폐합으로 차후에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물리치료과의 경우 법에 국가고시를 보는 과목이 정해져 있고 실제 교육과정이 그렇게 운영되는데 계열별로 통폐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박의수) 계열운영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보현)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4년제 종합대학도 아니고 전문대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2년이나 3년의 단기코스에 의해서 전공을 마치고 사회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자기주도선택교과를 하게 되면, 4년제 대학도 문제가 되어 어느 학과 학생인지 구별이 안될 때가 있고 나중에는 취업도 안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전문대학이 2년제 70학점 이상 가지고도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칙개정안은 타과 강의를 자유롭게 듣게 되어 있어서 당장에는 학생들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소속 학과로서의 특성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주도과정도 특별하게 잘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없는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한) 자기주도학습을 하기 위한 타과 강의의 자율화는 이미 타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대량으로 타과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이미 졸업학점의 20%정도는 타과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이번 학칙개정안은 소속학과의 전공최소 이수학점이 있어서 대략 타과강의를 졸업학점의 30%정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제도는 전공과목의 타과 강의보다는 학과별로 묶여 있었던 교양과목의 타과강의의 자율화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진) 전과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과를 신청했다가 탈락된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 장 정현준	이기욱	박종운	이명구	김종기	장수진	박지환	박보현	황철하	김석주	이용기
										

학생이 소속학과에서 잘 적응할지 걱정이 됩니다. 전과를 하게 되면 특정학과의 학생이 증가될 수 있어서 실습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전과제도에서 2지방까지 고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한 학칙 제5조의3의 계열 및 학과 폐지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교무위원회 위원이 중복되고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시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1조의 취업·창업지원센터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삭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경한) 전과에서 전출정원과 전입정원이 입학정원의 10%에서 20%까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습실 부족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취업·창업지원센터는 대외협력처의 한 부서로 편입되어 삭제한 것입니다. 교무위원회 중복부분은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지방지원제도는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학칙개정안에 신설과가 있는데 학과의 신설이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수) 전통조리과가 호텔외식조리과로 변경되었는데요 전통조리과의 입시경쟁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호텔외식조리과로 바뀌면서 내부적으로는 교육과정 변경과 함께 대학식당운영에 체계를 학생들의 실무능력배양과 함께 맞물려 운영하자는 계획안이 있구요 특전의무부사관과는 기존의 의무부사관과의 정원을 줄이면서 학군협약에 의해서 신설되었고요 공수부대 등으로 갈 수도 있구요 실제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의무부사관으로 가는데 취업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과수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구요 유사한 업무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있습니다. 과학수사과를 3년제로 개설했는데 향후 전공심화과정까지 개설해서 학사과정을 마치면 대학원 입학이 가능해서 국과수도 갈 수도 있습니다.

(김석주) 제81조에 청운학술정보센터에서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업무를 하게 되면서 흡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외형적으로 대학에 청운학술정보센터가 부속교육기관인데 도서관은 그대로 있고 박물관은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경한) 도서관은 학교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고 학칙에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수진) 그러면 청운학술정보센터에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모두 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경한) 네 심의안대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제5조의3에서 “각 호”라는 문구가 삭제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김경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각 호의 1이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양하게 심의의견을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칙개정안을 보면 대학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지만 대학은 계속 살아남아 발전하여야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학생은 줄고, 인터넷을 통한 강의를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의의견을 마치고 학칙개정안에 심의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의사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주무자는 심의의견을 학칙개정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다. 17:55분 산회)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 장 정현준	이기욱	박종운	이명구	김종기	장수진	박지환	박보현	황철하	김석주	이용기
